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통정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사도 5,27ㄴ-32,40ㄴ-41

회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ㄴ과 13ㄴ(◎ 2ㄴㄴ 참조)

(후렴)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 나 이 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제2독서 | 묵시 5,11-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1,1-19

영성체송 |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성가 | 입당 139                      예물준비 210 (217)  
영성체 165                      파견 245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말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 미사 봉헌

### 연미사 지향

- 이문한(이민환 안젤로의 조부)

### 생미사 지향

- 백이백 아오스딩
- 이정주 소화데레사, 이경숙 스콜라스티카
- 이웅희 루카 신부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안혜진 마리루시 수녀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이채은 글라라
- 김제나 글로리아
- 2025년 성령대회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
- 김성웅 사도요한
- 이경숙 스콜라스티카 : 빠른 쾌유를 위해
- 박현수 발렌티노 : 세례축하
- 조성자 데레사 자매님의 쾌유를 위해

| 날짜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지향 | 성찬봉사 | 복사      |
|--------|-----|-----|-----|------|------|---------|
| 5월 4일  | 장혜윤 | 송명근 | 박성현 | 김승연  | 유정옥  | 김수현 이예진 |
| 5월 11일 | 조소연 | 김규현 | 민재인 | 강진영  | 김종선  | 한서희 이예진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                  |                                                               |
|------------------|---------------------------------------------------------------|
| 주일 미사            | 오전 09:15 윗 성당                                                 |
| 청년 미사            |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
| 고해 성사            |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
| 혼인 성사            | 신부님께 직접 문의                                                    |
| 유아 세례            |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 Sr. 마리루시                                   |
| 봉 성 체            |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
| 예비신자 교리<br>견진 교리 |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br>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br>*신청: Sr. 마리루시 |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월례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지하성당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5월 성사반 개강**

어린이: <첫영성체반> / 학생 • 성인: <견진성사반>  
 (견진성사 대상: 2025년 3월 이전 세례성사 받으신 분)

교리일정 • 시간: 5/4, 5/11 5/18. AM.11:00-12:00.

첫영성체반(신부님): 코리안 오피스

견진반(수녀님): School 3A

첫영성체/견진성사 날짜: 5월 25일 청소년주일 미사 중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5월 11일 성소주일 & Mother's Day 행사**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사 중 안수와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께 꽃 증정이 있습니다.

**예수성가정회 회원 모집**

대상: 아기가 없는 신혼부부,

4세 미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부

문의: 858.345.0307(교육분과장 최병은 루치아)

**부활 세레반 첫 고해성사**

2025년 부활 세레반 고해성사 예절 연습과 첫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받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일시: 5월 17일(토) 3:00-5:00 PM

모임 장소: 큰회의실

**5월 성모의 밤 행사**

전 공동체 행사이오니 모든 신자분들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17일(토) 6:00 PM      장소: 대성전(위 성당)

**6월 바자회 준비팀 특전 미사**

- 바자회 전 날 준비팀을 위한 특전미사가 있습니다.

- 바자회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산 다미아노 홀에서 담당자(표해심 카타리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31(토) 6PM.      장소: 소성전(아래 성당)

**ME 부부 주말 피정**

일시: 5월 24(토) 7pm ~ 26(월) 5pm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289 US 206, Newton, NJ, 07860

신청: 장철순 스테파노 & 장혜윤 크리스티나

문의: 646-322-3484(장혜윤 크리스티나)

[Chriskim04@gmail.com](mailto:Chriskim04@gmail.com)

**2025 미동부 ME Walk-a-Thon 기금 모금**

대상: 누구나      참가비: \$20(경품추첨 있음)

일시: 6월 8(주일) 2pm

장소: Overpeck 공원

Henry Hoebel Pavilion Leonia, NJ

주최: 미동북부 ME

문의: 646-322-3484(장혜윤 크리스티나)

[Chriskim04@gmail.com](mailto:Chriskim04@gmail.com)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모집 인원: 유치부 & 초등부(3명), 중고등부(2명)

지원자격: Back Ground Check 완료하신 분

문의: 646. 287. 2582 교감 정승연 플로라

**2025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레지오마리에"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매주일 8am 단장: 347. 633. 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매주목 6pm 단장: 347. 514. 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매주일 11:10am

단장: 929. 208. 5147

\* 모집 대상: 세례 받은 남녀 교우(어른, 청 • 장년)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

## 제15회 생명주일 담화

## 과학 기술 시대의 인간 존엄성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2025년 정기 회년의 선포 칙서 제목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Spes Non Confundit.)라는 말씀(로마 5,5)과 함께 회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 칙서에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희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징표들, 특히 “생명을 전달하려는 원의를 상실”(9항)한 이들도 희망을 발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만큼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의 표징이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인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지내는 열다섯 번째 생명 주일을 맞아, 인간의 존엄과 인류 공동체의 밑바탕이 되는 생명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된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물질적 한계를 점차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평을 새롭게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 지능 기술은 과학 기술의 놀라운 혁신과 질적인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인공 지능은 다른 기술 혁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널리 퍼지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 줄 최선의 기술적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찬미받으소서」, 102항)이며, 우리 삶과 세상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 생명의 가치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기술과 합성 생물학의 발전은 질병 치료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지만 뜻밖의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과학 기술은 또한 윤리적 고찰과 책임 있는 기술 발전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학 기술이 단순히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발전하면 인간성을 상실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가 생명을 먼저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정치인들은 조력 자살을 미화시킨 ‘조력 존엄사’ 법안을 통과 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져야 할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사회 곳곳에서 생명 자체를 거부하거나 하찮게 만드는 “죽음의 문화”(「생명의 복음」, 12항)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하는 가톨릭 교회는 과학 기술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최우선적 자리를 잃어버린 생명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개방성은 참다운 발전의 핵심”(「진리 안의 사랑」, 28항)이라는 진리를 모든 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서는 오늘날 효율성과 생산성과 창의성을 앞세워 기술과 과학이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도구라고 믿는 ‘기술 지배적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며, 기술을 단순히 효율성이나 생산성 또는 창의성의 논리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 발전과 사회적 온전성을 위하여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찬미받으소서」, 106-114항 참조). 또한 인공 지능 기술이 불러일으키는 ‘열광’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인간의 선’을 위하여 그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서 한 연설, 2024.6.14.).

과학 기술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 쓰임 방식에 따라 사회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 기술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기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107항 참조). 따라서 과학 기술 시대에 우리는 더 인간다운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을 대체하는 데 기술을 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특히 기술을 통한 인류 번영의 중심에 생명,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복음의 기쁨」, 198항 참조) 없이 생명을 중심으로 한 인간 사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학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세워 지켜야 할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생명을 수호하며 희망의 표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을 향한 돌봄을 실천하며 인류 공동체에게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희망을 전하는 길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아멘.

2025년 5월 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